

공 개



의안번호	제 320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9. 29. (제 17 차)	

(대구)화원신용협동조합 000에 대한
직권재심 처리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고 승 범
제출 연월일	2021. 9. 29.

1. 의결주문

(대구)회원신용협동조합 000에 대한 직권재심 처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구)회원신용협동조합 000 000에 대한 '개선(改選)' 제재조치(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 행위자)가 법원 판결에 의해 취소되어, 판결 취지에 맞게 직권으로 재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신용협동조합법」상 위반사항인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과 관련하여 000 000에 대해 행위자로서 조치한 '개선(改選)' 요구 처분이 법원 판결로 취소되었으나

동 판결을 통해 감독자로서 업무처리상 과실은 인정되므로, 법원 판결의 취지에 맞게 000 000에 대해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의 감독자로서 '직무정지 3월'로 조치 요구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84조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6조 <별표 3> V-2. 및 제52조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제23차 제재심의위원회(2021.6.22.) 심의필
- 제16차 안전검토 소위원회(2021.9.3.) 심의필

<별지>

(대구)화원신용협동조합 000에 대하여 직권으로 재심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직권재심 이유

☐ 2020.11.12. 법원 판결에 의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의 행위자로서 000 000에 대한 ‘개선(改選)’ 제재조치 취소가 확정되었으나, 관련 판결에서 감독자로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으므로,

- 법원 판결의 취지에 맞게 직권으로 재심하여 000 000에 대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의 감독책임을 부과함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7조(이의신청) 제5항에 의하면 감독원장은 증거서류의 오류·누락, 법원의 무죄판결 등으로 그 제재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할 수 있음

2. 조치내용

☐ 000 000에 대해 “직무정지 3월”로 조치 요구

조치 대상자 명세

직 위	성 명	귀 책사항
000	000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3. 조치사유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2012.12.11.~2015.7.30. 기간 중 ○○○ 등 ◎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 등 ♡♡건, ☆☆☆억 ㉸백만원을 취급하여 2014.5.27. 현재(대출 잔액 ♡♡억 ◆◆백만원) 동일인 대출한도(▼억 ○○백만원)를 ♡♡억 ㉸백만원(2013년말 총자산 ♡♡,♀♀♀♀백만원의 ㉸.㉸%)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84조
2.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관계 법규

1. 신용협동조합법(2015.1.20. 법률 제130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등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여 행하는 대출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등으로 본다.

제84조(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정관·규정이 정한 절차·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직무의 정지 또는 견책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
3.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①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란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각각 최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2016.10.24.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동일인대출한도 등) ⑥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설정하는 최고한도는 5억원으로 한다.

⑦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설정하는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250억원 미만인 조합 : 30억원
2.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상인 조합 : 50억원

4.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2017.10.19. 금융위원회고시 제2017-38호로 일 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재대상 위법·부당행위)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재의 대상으로 한다.

1.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2.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3. ~ 7. (생략)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임권고(해임요구, 개선(改選)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가. 고의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 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자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위의 행위로 인하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 10조에서 정한 적기시정조치를 회피하는 경우
 -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 바. 기타 금융관련법규에서 정한 해임권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가.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제1호에 따른 제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나.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문책 경고
 -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 나.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 다.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 라.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 마. 금융관련법규에 의한 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바. 금융위, 감독원장, 기타 감독권자가 행한 명령, 지시 또는 징계요구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 사.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 5. 생략

-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7조(이의신청) ① ~ ④ (생략)

- ⑤ 감독원장은 증거서류의 오류·누락, 법원의 무죄판결 등으로 그 제재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하여 제3항 각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2015.9.11. 금융감독원세칙으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개전의 정 및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2.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 6. (생략)

- ②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 등 특정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3의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등 여타 제재기준을 참작하여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등 제재수준을 정할 수 있다.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
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별표3>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V-2. 신용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동일인대출한도초과 대출취급 등

1. 제재대상

-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95조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에서 정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

2. 제재기준

제재의 종류	자기자본대비 기준		총자산대비 기준	
	차주별한도초과 취급액비율	한도초과취급 합계액비율	차주별 한도초과 취급액비율	한도초과취급 합계액비율
개선(改選)/면직	50% 초과	100% 초과	25%초과 또는 7억원초과	5%초과 또는 21억원 초과
직무정지/정직	30%~50%	50%~100%	1.5%~2.5% 또는 5억원~7억원	2.5%~5% 또는 11억원~21억원
문책경고/감봉	20%~30%	30%~50%	1%~1.5% 또는 3억원~5억원	1.5%~2.5% 또는 9억원~11억원
주의적경고/견책	10%~20%	20%~30%	0.5%~1% 또는 1억원~3억원	1%~1.5% 또는 3억원~9억원

- 주 1) 동일인대출한도가 자기자본기준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자기자본대비 초과비율로, 총 자산기준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총자산대비 초과비율(금액)로 양정
- 2)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임.
- 3) 각 정해진 범위는 '초과'부터 '까지'임.
- 4) 총자산대비 기준으로 양정시 한도초과금액에 대한 제재종류가 총자산비율대비기준과 금액대비기준에 따라 서로 다를 경우 더 무거운 제재로 함.
- 5) 대출한도 초과취급 규모가 최저 제재양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주의 등 조치

3. 가중 및 감경

취급 당시의 동기나 상황 및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사유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제재양정을 가중 또는 감경하여 운용할 수 있다.

- 가.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으로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이상으로서 3억원 이상의 부실여신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준양정보다 가중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나.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행위가 전번 검사와 이번 검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일반지적사항 포함)되는 경우 가중 제재한다.
- 다. <삭제 2010.8.31>
- 라.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 한 자에 대하여는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중소금융과	상호금융검사국
연 락 처	02-2100-2983	02-3145-8166